

수출 호조세, 추경집행 효과… 올 경제성장률 4.0% 전망

KDI, 2021 하반기 경제전망

소비심리 회복… 민간소비 3.5%↑
내수회복에 내년 성장률 3% 예상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9.1%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이전 전망(3.8%)보다 높은 4.0%로 제시했다. 수출 호조세와 함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집행 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성장률이 3.0%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등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올해 정부의 두 차례 추경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4.0%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 4.2%, 국제통화기금(IMF) 4.3% 보다는 낮다.

KDI는 올해 정부의 두 차례 추경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의 재정 집행 효과로 올해 민간소비는 3.5% 증가를 예상했다. 방역 조치 완화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난해 -5.0%로 위축 나빴던 기저

효과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차 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부분을 상향 조정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과 건설 투자를 하향 조정했다”며 “종합적으로 0.2%포인트 올린 성장률 전망치를 냈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와 같다.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민간 소비도 3.9% 증가 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9.

1% 증가하고, 내년에도 3.2%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올해 -0.5%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2.4%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8.5% 증가율을 보이고, 경상수지도 912억달러(약 107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3.2% 증가를 점쳤다.

올해 취업자 수는 최근 고용 회복세와 함께 대면서비스업이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36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도 30만명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한 내년 3.7%로 전망했다.

최근 3%대까지 치솟았던가 소비자 물가는 올해 2.3% 상승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며 1.7% 상승을 전망했다.

정 실장은 “장기간 저물가에 있다 최근 반등한 것이라 국내 물가가 단기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KDI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고,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SK, 베트남 크라운엑스에 4000억 투자

마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유통·물류·핀테크 분야 등 협력

SK그룹이 동남아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성공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토리’도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SK는 11일 베트남 마산그룹 ‘크라운엑스’에 3억4000만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엑스는 베트남 식음료 1위인 마산컨슈머홀딩스와 유통 1위 원커머스를 자회사로 둔 곳이다. 2018년 이후 매년 매출 성장 20% 이상을 이어가며

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5월 중국 알리바바 컨소시엄에도 4억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지속해왔다.

SK는 2018년 마산그룹에 투자하며 확보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알리바바와 동일한 투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서 SK는 크라운엑스 자회사인 원커머스에도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지난 4월 4억1000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추후 성장하는 시장에서 추가 투자 기회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지 사회와 파트너와 신

뢰를 쌓아 SK 역량을 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전략.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토리’와도 맞닿아 있다.

원커머스 역시 베트남 현대식 유통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회사, 동남아 전자 상거래 플랫폼 라마다와 협력해 온라인 유통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성장세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SK는 이번 투자를 통해 마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통과 물류, 핀테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동남아투자법인 박원철 대표와 마산그룹 대니 레 CEO

/SK

SK동남아투자법인 박원철 대표는 “마산그룹은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며 “SK는 금번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베트남 유통시장에서 큰 결실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산그룹 대니 레 CEO는 “이번 투자로 크라운엑스의 성장 가능성을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SK와 함께 베트남 시장을 선도하는 소비자 플랫폼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웅 기자 juk@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 소유 햄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햄터라이프 T.010-4480-0045

롯데, 와디즈에 800억 투자 ‘기업 육성’

중소기업 종합펀딩 플랫폼 구축 참여
기업대출·투자, 빅 브랜드 육성 지원

롯데가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800억원을 투자해 스타트업 육성에 앞장선다.

롯데는 와디즈와 사업제휴를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펀딩 플랫폼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와디즈는 2013년 크라우드펀딩 기업으로 출발해 펀딩 중인 제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숍 ‘공간 와디즈’부터 펀딩 성공 제품의 온라인 상시 판매 채널 ‘와디즈 스토어’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D2C (소비자에 직접 연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와디즈를 통해 시작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사용된다. ‘기업 대출’과 ‘직접 투자’ 등 와디즈 금융 부문 확장을 비롯해, 빅 브랜드 육성을 위한 투자와 마케팅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